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토지 보상 완료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에
1단계 공공사업 내년 착공
사업비 953억 민자 유치 나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 광양시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조감도)를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내년부터 놀이터와 야영장 등 1단계 공공사업이 시작되는데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인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양시는 황갈동 구봉산 자락 60만3000㎡ 규모의 중앙근린공원에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편입 부지 보상을 모두 마쳤다.
광양시는 테마파크와 연계사업을 포함한 사업비 953억(국비 229억, 도비 156억, 시비 568억)을 2025년까지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전체 부지 가운데 8만㎡ 규모로 숲속 야영장과 상상 놀이터 등 1단계 공공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1단계 공공사업은 실내 감성 놀이터와 실외 가족 놀이터로 구성된 상상 놀이터와 숲속 야영장, 통합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며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11

월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1단계 공공사업 부지를 제외한 52만㎡ 부지를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업체와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어서 민자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민간 투자자가 확정되면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합산 출산율이 1.27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평균연령은 41.6세에 청소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지만, 어린이와 가족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내외 테마파크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송명종 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장은 “테마파크와 인근 연계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교육·관광·문화 기반시설이 해소되고 구봉산 일대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재탄생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개발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내년 시행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쟁점

여수시 하반기 인사 전담팀 구성
기념공원 조성·유해발굴 등 지원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진상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순사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기념공원 조성 및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진상규명 조사와 함께 기념공원, 사료

관, 평화·인권 교육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 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목을 이뤘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과 지원 사책 검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관련 각종 문헌과 사료, 사진, 영상 등을 모아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구축해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 열린 제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에 맞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으로 피해 신고 접수 등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11월 비대면 개최

5000명 모집... 풀코스는 취소

순천시가 오는 11월 ‘제21회 남승룡마라톤대회’를 코로나19 극복 위한 비대면 마라톤 대회로 개최한다.
제21회 남승룡 마라톤대회는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온택트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프, 10km, 5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풀코스는 운영하지 않는다.
참가자는 대회 기간 동안 이동 동선을 기록할 수 있는 GPS(리닝앱)를 활용해 경주 기록을 측정할 수 있다. 대회 홈페이지에 본인 기록과 대회 참가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5000명 모집 완료시까지 남승룡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으로 참가자에게 스마트워치, 마스크, 기념메달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는 1936년 배를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일제강점기에 억눌린 우리 민족의 기개를 전세계에 떨친 순천 출신 남승룡 선생의 활약을 기리기 위한 대회이다.
남승룡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스무 번의 대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대회는 남승룡마라톤조직위원회를 순천시체육회로 편입해 치르는 첫 대회이다.
순천시체육회는 “비대면 대회이지만 남승룡 마라톤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에 남승룡마라톤대회와 순천시를 알릴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로드 레이스 방식으로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목재문화체험장 체험객과 방문객들이 무인카페 '나무로 만든 세상'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교육생들이 만든 목조주택 무인카페 활용 '일석이조'

목재체험장 방문객 휴식공간 제공
구례군이 올해 상반기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조주택 짓기 체험과정으로 만들어진 목조주택 무인카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목조주택 짓기 양성교육은 4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

정으로 매주 토요일 12주에 걸쳐 추진됐다.
목조주택은 20㎡ 규모로 완성됐으며 교육생들이 직접 연장을 사용해 난이도 있는 목공기법을 활용, 시공하는 교육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체험 교육이 끝난 후 완성된 목조주택은 구례목재문화체험장 체험객과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무인카페 '나무로 만든

세상'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중이다.
구례군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양한 체험교육을 추진해 연간 5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 일환으로 추진해 완성된 목조건축물을 무인카페로 상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치매극복 사행시 짓기' 이벤트

28일~30일... 치매극복 주간 행사

곡성군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치매극복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이벤트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QR 코드 또는 URL로 접속해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주제를 담아 사행시를 작성해 응모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응모자 전원에게 기프트콘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극복 주간 행사도 개최된다.
오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치매 체험부스 운영, 인식 개선 캠페인, 현장 치매 선별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매극복 주간 주요 행사는 기차마을 전통시장(28일), 옥과 전통시장(29일), 석곡 전통시장(30일)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3) 140평(분양) 시세 9억</p> <p>매가 7억(용4억)</p> <p>월수익 280만(보4천)</p>	<p>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p>	
<p>010-6670-9800</p>	<p>010-6670-9800</p>